

민주, 힘 받는 '이재명 체제' ... 계파 갈등 소강 국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나도 국회의원' 발족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나도 국회의원'은 2030여성당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교육이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 당무 복귀...보궐선거 승리 직후 '통합' 메시지 민생 행보에 집중...가결과 징계·공석된 최고위 임명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16일 여의도 복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승 여파에 당내 계파 갈등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 전후, 통합을 강조하며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틀 전인 지난 9일과 승리 직후인 11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고 연이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내 단합과 결집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외상값을 치러야 할 때" 등 거친 표현으로 가결과 응징을 예고한 정경래 최고위원조차 최근 비명계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비명계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했다는 점에서 지상 과제인 총선 승리를 위해 가결과 징계 최소화로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도부는 물론 당내 전반에 확산되는 기류도 읽힌다. 여기에 검찰의 잇단 불구속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모적 갈등보다는 통합의 행보가 적절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역 국

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라는 점에서 정치 보복으로 읽히는 징계는 당내 소모적 갈등과 반발만 일으켜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등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 대표가 이르면 16일, 늦어도 18일까지는 최고위원회의의 참여를 통해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면서 소모적 징계 논란에 빠지기보다 통합과 민생 행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중전'이 아닌 '휴전'일 뿐, 뇌관은 여전히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걸으려는 '통합'을 의치고 있지만,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강성 당원들을 앞세워 공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비명계를 다독이고 있지만, 친명계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공천 확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과 배려'보다는 '생존'이라는 정치적 키워드가 강했던 이 대표가

과연 당의 결집과 통합을 이끌 폭넓은 리더십을 보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결국 공정한 시스템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느냐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결집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통합의 첫 기능지는 가결과 징계 문제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원외의 조지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강성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과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이 대표로선 부담이다. 징계에 나설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내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지도부 인사들은 이 대표에게 통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위해 총선 출신 여성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일색의 지도부는 그리 건강한 정치적 생태계로 볼 수 없다"며 "과감하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 "與, 보선 패배 꼬리자르기"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 비판... "진짜 책임자 국민께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힘 김태우 전 후보를 사면·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며 김 전 후보에게 공천을 준 국민의힘 김기현 대

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책임을 져야 할 김 대표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사법 판결까지 부정하며 국민을 모독한 정부·여당의 진짜 책임자는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이재명 대표의 구

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파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복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법원 청사 앞에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극우단체의 근조 화환이 대거 놓여있으면서 "여당과 극우단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정부, R&D 예산 줄이고 홍보비는 평평"

33년 만에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되레 홍보비 예산은 평평 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의희망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자부는 홍보 기사 6건에 1억1300만 원을 지출했고 이 중 약 3000자 기사에 5000만 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향자 의원실이 산자부가 의뢰한 기획기사 6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은 단순히 보도자료 내용을 담거나 인터뷰를 그대로 실는 단순 홍보성 기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편성된 2020년도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기획 기사는 약 3000자 홍보성 기사로 5000만원이 지출됐다.



또 산자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언론스크랩 사업에 5년간 7억6800만 원을 쓰면서도 에너지정책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동향 Brief' 스크랩 사업에 1억원을 중복 지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단순 홍보 기사 5000만 원, 100명만을 위한 '복불스크랩' 사업 1억원 지출을 보며 그저 황당할 따름이며 눈먼 돈처럼 홍보 예산은 몰쓰듯 쓰고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정부를 과연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낙시어선 사고로 매년 4.5명 사망"

최근 낙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낙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낙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시어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돌, 좌초, 접촉, 안전사고 순으로 많았다. 낙시어선의 총돌사고 상대선박은 일반어선, 수상레저기구, 낙시어선 순으로 많았다.



낙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낙시어선업 이용객은 519만명으로 2014년 207만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낙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낙시어선 사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총선 브리핑

박균택 변호사 '송정·도산권 정책 제안·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마 예정자인 박균택 변호사가 14일 '송정·도산권 -정책 제안 및 토론회'를 가졌다.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농협 본점 5층에서 지지자들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제안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박균택의 삶과 꿈, 그리고 광산이야기" 책에 수록된 광산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토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균택 변호사는 "공직 생활 중에는 물론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수많은 날을 고민해왔다"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참석하셔서 (저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밝혔다.



박균택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이른바 이재명 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아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광주 광산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 에 임명돼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다. 현재는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과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면서 시민들과 민주당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